

치 사

올해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자와 출판사 그리고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기뻐해주는 사부대중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글이라 함은 쉽지만 가볍지 않고, 넓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일은 개인의 작은 결심만으로는 성취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길을 걸으며 부처님 법을 더욱 널리 알리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묵묵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은 불교사상과 가치를 널리 전파하는 무거우면서도 아름다운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양질의 독서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러한 개인의 삶에 질을 높여주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불사의 선봉에 섰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임한다면 불교문화의 발전은 진일보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불교의 지혜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출판인들의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계 출판인 그리고 출판물들이 사회적인 흐름을 주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러한 흐름을 잘 읽고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엮어낸다면, 불교출판문화와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온 이 길, 또 나아가야 할 여정에서 불교와 전통문화 보급의 큰 획을 긋는 불교출판문화상이 성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교출판문화협회 지홍스님을 비롯한 불교출판 관계자들과 총무원의 소임자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한번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자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55년 12월 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